

광주공동체 원탁회의가 본 광주시 민선 5기 1년

“구도심 살릴 실질대책 없어 아쉽다”

시민소통·R&D 특구 지정·투자 유치는 큰 성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여성계, 문화계 등 각계 분야 대표자들이 민선 5기 1년에 대해 옛 전남도청 별관 논란 등 지역 내 갈등요소 해소, 시민과의 대화 개최를 통한 소통 구조 정착, 광주 R&D 특구 지정 및 국내외 투자유치 결실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또 실질적인 도심 재생 및 문화산업 진흥정책 마련, 만연한 불법주정차 대책 수립,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선 5기 1년을 맞아 29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각계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광주공동체 원탁회의'가 열렸다.

김준태 광주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옛 도청 별관 보존’, ‘야구장 건설’, ‘U대회선수촌 조성’, ‘택시 6부제 실시’ 등 오랫동안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지역현안들을 시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해결한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과”라고 밝히며 환

여와 성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참석 위원들 역시 시정 각 분야에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향후 민선 5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준태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린 푸른광주21협의회 상임대표는 “광주가 녹색창조도시를 표방한 만큼 환경오염과 지하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중 전 시장은 “양심, 정의,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다수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영관 광주YMCA 이사는 “국내외 문화산업체의 유치가 중요하지만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화산업의 진흥 역시 절실하다”고 했



29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각계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광주공동체 원탁회의'에서 민선 5기 1주년을 평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며, 유희열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역 중소기업체에서의 구직난, 구인난 등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과 함께 “광주시가 도심재생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도심학교 활성화 방안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집기 광주전남진보연대 상임대

표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광주공항 미군기지 오염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5·18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5·18 기록물 수집운동을 전개하고, 장애인 정책 강화, 여성의 지위 향상과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현석기자 chadai@kwangju.co.kr

적성·소질·수준에 맞는 ‘맞춤학습’

스마트교육시대 학교 어떻게 바뀌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29일 청와대에 보고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은 정보통신(IT)기술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에 발맞춰 획기적으로 달라질 학교현장의 모습을 제시한다.

교과부와 전략위는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국가교육경쟁력 세계 10위권, 2025년까지 세계 3위권에 진입하는 목표를 세웠다.

중요 교과서가 디지털교과서로 =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과서의 종이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된다. 디지털교과서는 교과내용,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은 물론 공책까지 들어있고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가 포함된 미래형교과서다.

디지털교과서는 정형화된 형태라기보다는 일종의 콘텐츠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모든 디지털교과서 내용이 인터넷 서버에 저장되면 PC나 태블릿PC,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불러내 사용할 수 있다.

2007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시

범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디지털교과서는 2014년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초중고 전체로 확대된다.

적성, 소질,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평가 = 스마트교육의 핵심 개념은 ‘맞춤형’과 ‘자기주도형’이다. 똑같은 수준의 수업내용을 모든 학생이 일제히 듣고 똑같은 측정 잣대로 시험을 보는 교실의 모습을 바꾸자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취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들을 기회도 늘어난다.

교사가 부족하거나 수강 희망학생이 적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는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온라인 수업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평가시스템도 달라진다. 2012년부터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예비·진단·지도 시스템이 갖춰지고 개별 학교에 온라인 수행평가체계가 구축된다. 지필평가 위주의 평가방식은 온라인 수행평가로 개선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평가 문제를 선생님이 제시할 수도 있다.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서 벗어나는 = 정규교과에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된다. 2013년부터 현재 지면이나 질병으로 결석하는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을 기회를 준다. 고등학교에서 소수학생이 선택하는 교과목, 중학교의 집중이수제 대상 학생 등도 온라인 수업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실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학생들이 필기하는 형식이 파괴된다.

저작권, 윤리교육 해결과제 = 정보가 인터넷상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이 정보를 각종 IT 기기를 활용해 불러내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스마트 교육의 기본 토양이다.

교사와 학생이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도 교육콘텐츠를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CCL)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과 인성교육도 강화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연합뉴스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참여한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회 및 포럼이 2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광주 과학기술원 오희관에서 개최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소재 호남 경제 성장축으로

지경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성과 전시회 개최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뛰어난 성과를 거두면서 광주와 전남·북 지역이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부품 소재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167개 기업 및 72개 유관기관이 지난 2년간 일자리 2289개를 창출했으며, 매출 3545억원, 수출 1억2300만

달러, 특허출원 및 등록 150건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부품소재 산업을 호남권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광 기반 부품소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태양광, 풍력 등 4개 프로젝트에 지난 2년간 모두 1132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광 기반 부품소재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프로

젝트는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참여한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회 및 포럼을 29일 오희관 산업관을 호남권 선도산업관 오희관에서 개최했다. 선도산업의 2차년도 사업 종료에 맞춰 열린 이번 전시회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3차년도 최종 성과표표 달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금호전기(주)의 CIGS모듈, (주)탐선의 대용량 결정질 모듈, 두산중공업의 풍력발전시스템, LS엠트론의 전기구동 트랙터, 데크항공(주)의 해상풍력발전기용 블레이드, 광주인탑스의 LED면발광 실내조명, (주)지앤디원텍의 4인승 전기자동차 등 130개 선도기업이 개발한 우수상품이 전시됐다.

종합 성과보고회를 겸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경원 지경부 차관보, 광주시 강계두 경제부시장, 전남도 정순남 경제부지사, 전북도 정현을 행정부지사, 김용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을 비롯해 지역 산업전문가 및 기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경원 차관보는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 분야에서 호남권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호남권이 세계 최고수준의 클러스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www.gist.ac.kr

정상급의 GIST 연구수준!

세계가 먼저 인정했습니다.

1st

5.24편

교수 1인당 연평균 SCI 논문 수 『8년 연속 국내대학 1위』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8월 24일 발표)

영국 QS 2010년 대학평가 세계 10위, 아시아 1위
 Citations per Faculty (교수 1인당 논문피인용지수)

순위	학교명	국가	점수
1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100
2	Stanford University	미국	100
3	Harvard University	미국	100
4	Princeton University	미국	100
5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미국	100
6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미국	100
7	University of Washington	미국	100
8	Johns Hopkins University	미국	100
9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100
10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한국	100
11	Tel Aviv University	이스라엘	100
12	Universitat Mannheim	독일	100

이공계 특성화대학 지원전략 및 GIST 학사과정 입시설명회
 · 광주, 호남권: 7월 2일 14시, GIST 오희관
 · 대구, 영남권: 7월 9일 16시, 엑스코
 · 원주, 강원권: 7월 16일 15시, 인터불고
 · 대전, 충청권: 7월 23일 14시, 스피피아
석·박사과정 입시설명회
 · 서울, 수도권: 7월 8일 14시, 코엑스 402호
 · 광주, 호남권: 7월 15일 11시, GIST 오희관

문의
 500-7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리로 20 광주과학기술원 입학지원센터 및 대학원생팀
 Tel:(062) 715-2053~2056 Fax:(062) 715-2059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빛의만평

- 김중두



충선용으로 간관 바뀌도 될 듯~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